

가축 청정지 명성 이어가

남원시, 전국서 피해적어 축산농가 피해 대응 축사내 환기 쉼 지원

남원시에 따르면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에서 가축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가축 청정지역이라는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남원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현재 남원지역에서는 총 18농가에서 13만9,972두 수(닭 13만 8,590수, 오리 1,380수, 소 1두, 돼지 1두)의 가축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지난해 도내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닭 116만18,000수와 비교해서도 월등히 적은 수치이다.

이러한 결과는 축산농가와 남원시가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그동안 남원시는 이상기온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축산분야 폭염대응 상황실을 운영함과 동시에 매일 2회 폭염대비 홍보 문자를 발송해 폭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왔다.

또한 닭, 오리, 돼지 등에서의 호흡기 질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청결한 축사유지와 시원한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열량, 고단백 사료를 급여해 가축들의 체력을 보강하는 한편, 온도가 높아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사료급여를 자제하도록 했다.

특히, 돈사와 계사 천장에 수분을 분사해 복사열을 낮추는 안개분무기와 급작스러운 정전에 대비한 자가발전기를 지원하는 등 2억9천2백만원을

투입해 축사 내부 통풍을 위한 환기 쉼 940대를 지원해 폭염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폭염피해 경감을 위해 4억원을 투입해 494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급수조절장치 및 살수장치를 통한 온도조절, 적정 사육두수 유지, 환기장치 가동, 차광막 설치 등 폭염대응 가축관리요령 및 예방에 대한 홍보와지도 활동을 강화했다.

한편 남원시 관내에서는 닭 928만수(141농가), 오리 84만수(46농가), 소 3만7,000두(908농가), 돼지 11만4,000두(69농가)가 사육되고 있으며, 시 축산관계자는 "청정지역이라는 막바지에 이른 폭염이 끝날 때까지 폭염대응 상황실을 가동해 축산피해를 최소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이 제18회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외국 대표팀의 전지훈련 장소로 각광 받고 있다.

외국인선수들 전지훈련지 '각광'

자카르타·팔렘방 AG 정구 필리핀 대표팀, 순창서 훈련

순창군이 제18회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외국 대표팀의 전지훈련 장소로 각광 받고 있다.

지난 14일 순창군에 따르면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필리핀 정구 국가대표 12명이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대회 전 마지막 집중 전지훈련을 순창에서 실시하고 있다.

필리핀 정구 국가대표팀은 순창군청과 군산대학교 선수들과 연습 경기를 통해 아시안게임 메달 획득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번 필리핀 선수단 전지훈련 유치는 올해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과 주니어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등 굵직한 전국대회를 거치면서 순창군이 정구대회 개최지로 명성을 알린 결과다. 또 파트

너 훈련을 할 수 있는 군청 실업팀, 제일고 남아 정구팀이 상주하고 있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했다.

특히 무더운 여름에도 경기가 가능한 실내코트 8면 등 훌륭한 경기장을 갖춘 점도 필리핀 국가대표 팀이 순창을 전지훈련장으로 선정한 이유다.

군은 순창이 정구 전지훈련지로 국제적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유치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순창이 전국을 넘어 세계적 정구대회 유치와 전지훈련 지역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면서 "성공적 대회를 치르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도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규모 스포츠대회 유치를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노후상수관 현대화 대상 선정

300억원대 사업비 투입 우수율 85% 계획 안정적 수돗물 공급

임실군이 300억원대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의 대상지로 확정됐다.

군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의 대상지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308억원을 들여 대대적인 상수관망 현대화 작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그동안 임실군은 군비 100%를 투입하여 노후상수도 시설물을 정비해 왔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상수도 시설에 대한 적기 정비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런 가운데 총 사업비 308억원 중

50%인 154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향후 상수도 시설물 현대화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노후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은 2023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목표 우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시설물 정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수율이 61.7%에 이르고 있고, 최근 유래 없는 폭염과 가뭄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역민들이 적잖은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임실군 상수도는 지난 1990년 설치되어 전체의 17.7%가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물로 우수율이 54.4%에 미치고 있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블록 및 관망시스템 구축 등 종합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군은 이번에 총 사업비 308억원을 확보했으며, 이 중 2019년

사업비 국비 60%인 28억원을 포함해 총 46억원을 투입해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관망정비,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 정비 등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누수저감은 물론, 상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녹물발생, 단수작업 등에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우수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여 누수율이 올라가고 지역주민의 상수도 민원 증가, 경영난 등의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며 "하지만 이번 상수도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서 군민들이 걱정없이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인계면, 취약계층 폭염사고 예방활동 전개

순창군 인계면사무소에서 취약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인계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담당자가 각 마을과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폭염대응요령 및 응급사한 발생에 따른 조치 방법 등의 안전교육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8월 6일 ~ 9일까지 저소득 취

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폭염을 견디는데 도움이 되도록 3D에어매쉬 매트와 인견토퍼(여름이불겸용)를 전달해 소외계층의 폭염 나기를 도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흥부골 아영 포도축제 18일 개최

남원시 아영면의 고풍지에서 재배 생산되며 전국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흥부골 포도가 올해에도 18일 개최되는 제2회 흥부골 아영 포도축제를 통해 전국적인 선종을 예고 하고 있다.

축제는 아영 포도작목회(회장 오준록)가 주관하며, 포도 작목반원들이 정성을 다해 재배한 맛있는 포도가 출품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포도시식과 포도와 관련한 OX 퀴즈도 열린다. 또한 식전행사와 난타 공연팀이 신나는 공연으로 행사분위기를 고취하고, 흥부골 포도 홍보대사인 문봉출신 가수 미소가 공연을 펼친다.

지난 2015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포도로 인정받고 있으며,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과수품질 평가에서 최우수상(농림식품부장관상)을 받았고, 대한민국과일산업 대전에서도 최우수상(장관상)을 받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중년남성 요리 수강생 모집

순창군은 9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년 남성이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골드룩 과정을 운영키로 확정했다.

이번 교육은 40명 규모로 3박 4일간 순창건강장수연구소에서 합숙 과정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선착순 모집으로 전국에서 사람이 물리기 때문에 예약을 서둘러야 한다. 교육신청은 순창건강장수연구소 전화 063-650-1536에서 진행하고 있다.

교육 모집은 선착순인 요리 교육은 전남과학대학교 한도연 교수의 지도하에 후다닥 요리, 웰빙 건강밥상, 내 아내는 손주를 위한 요리 등 다양한 요리법을 배운다. 잔치국수, 미역국, 불고기, 생선구이, 두부조림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먹기도 하고 쉽게 선보일 수 있는 요리 메뉴로 구성하여, 잘 배워가면 가정에서 요리 잘하는 남편, 아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요리실습 뿐만 아니라 서울대 교수의 영양과 질병과의 관계, 장수를 위한 식생활 관리, 식품의 기능성과 건강보조식품 강의 등 실생활에 도움되는 건강강의 들로 의학 기초지식을 습득하여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을 배우고 개인별 운동처방 시간으로 인바디 검사, 밴드 운동 등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배움의 시간도 진행된다. 남성대상 골드-룩 과정은 설문조사 결과, 매년 90% 이상의 만족도를 기록하며 재 방문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민원과, 공약사업 친절도시 만들기 앞장

남원시 민원과가 이환주 시장의 민선7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매우 친절함 남원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양원철 민원과장을 비롯한 민원과 직원 11명은 7월 10일부터 4일간 부산광역시 등 11개 기관을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타 자치단체의 기관별 우수사례를 접목시켜 알맞은 시책 발굴에 나섰다.

매일 첫째주 목요일 외부강사를 초빙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 실시, 전 직원 친절 강사와 하는 친절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규공무원 1일 안내도우미제 통한 체험, 친절명함 제작 활용, 친절다짐을 위한 친절거울 설치 등을 세부적으로 추진 할 방침이다.

양원철 민원과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절함 남원시를 만들기 위한 각종 친절시책을 추진하고, 시의 친절마인드 홍보를 위해 민원인 및 방문객에게 친절명함을 만들어 나누는 등을 통해 신뢰도 제고는 물론 민원인과의 친근교감으로 친절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眞心 眞心
眞心 眞心 眞心
眞心 眞心 眞心